

교훈 : 정직



가 정 통 신 문

제40회 장애인의 날 안내

제 2020 - 035 호

담당 : 교무기획부

경기도 시흥시 매화로 71

☎ 070-7097-0279

학부모님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가오는 4월 20일은 **제40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등교를 한 후 함께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의 인권과 다양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더불어 이해의 폭을 넓혀 장애가 있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협력하여 학교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더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웃고, 울고, 상처받고 감동하고 행복한 아이’라는 것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거나 놀리지 않고, 도움을 나누며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자녀에게 따뜻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며 다른 친구들과 협력하는 것을 배우는 행복한 학교가 될 것입니다.

▪ 본교에는 특수학급 1학급이 있습니다.

- 특수학급에는 1학년 1명, 2학년 1명 재학 중입니다.
- 특수학급 학생들 국어, 영어, 수학 수업을 제외한 수업은 일반학급에서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고, 국어, 영어, 수학 수업은 통합교육반에서 학생 개인의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개별화교육계획: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7항)

2020. 4. 20.

시 흥 매 화 중 학 교[직인생략]

제40회 장애인의 날 ‘다시 봄’

▪ ‘장애인’이란 말을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혹시 놀리는 말로 사용하진 않나요? 편견과 차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요?

‘장애인’은 그 사람의 이름도 놀림의 대상도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별명으로 불리는 것보다 내 이름이 불리는 게 좋은 것처럼 타인에게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 ‘다르다’ VS ‘틀리다’

전 세계에는 다툼은 있지만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피부색, 머리색, 두 발로 걷지 않고 휠체어를 타는 사람, 말 대신 수어를 이용해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키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노래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는 다르다는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나와 다른 부분의 차이 때문에 차별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 ‘장애인의 날’ 지정 이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 ‘장애인의 날’의 유래

장애인의 날은 유엔이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하고, 각 국가들이 장애인에 대한 기념사업 추진을 권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장애인의 해’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981년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법정기념일로 지정받지 못하다가, 1989년 12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는 ‘국가는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일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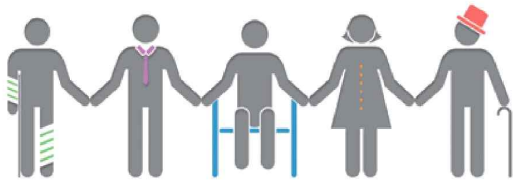


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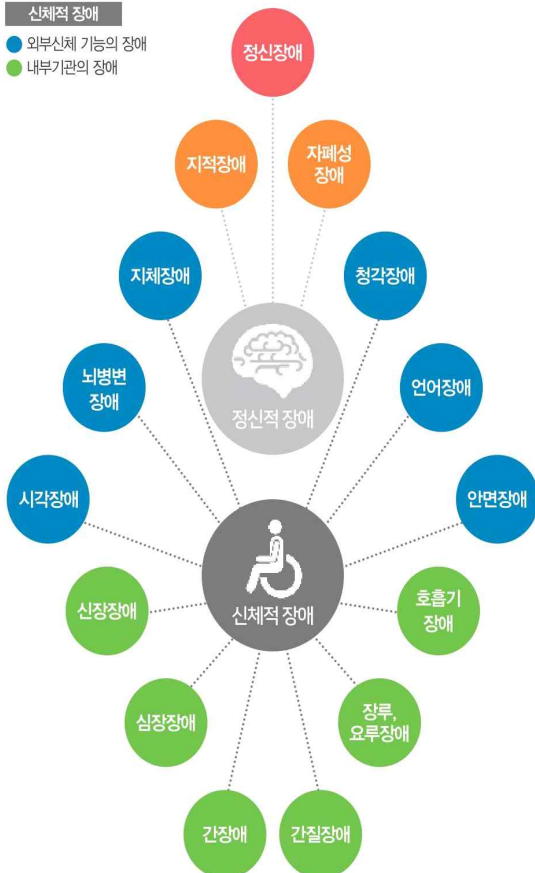
01 장애인이란?

신체 일부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장애인은 조금 다른 뿐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

- 정신적 장애
 - 정신장애
 - 발달장애
- 신체적 장애
 - 외부신체 기능의 장애
 - 내부기관의 장애



출처 : 보건복지부

02 알고 계세요?

대한민국 등록 장애인 수 250만명
미등록 장애인까지 포함하면 500만명

등록 장애인 수
250만명

미등록 장애인 수
250만명



적어도 7가구 중에 1가구에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90% 이상이
사고, 질환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이라는 사실



장애인에 대한 예절, 알아둡시다!



장애인을 만났을 때

-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와 같이 자연스럽게 대하고, 도움을 주기 전에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기



바른 언어 사용

-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부를 때 '장애인'이나 '도움반'이라는 명칭 대신 이름 불러주기



시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할 때,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각장애인을 안내할 때에는 흰 지팡이의 반대편에서 팔을 잡게하고, 반보 앞에서 걷기



시각장애인을 의자에 앉게 할 때에는 의자 등받이에 손을 갖다 대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청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청각장애인은 입 모양을 보고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함부로 말하지 않기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나눌 때 조금 천천히 말하거나 문자로 소통하기



지적장애인을 만났을 때

한자리에 오래 혼자 서 있거나 길을 헤매는 지적장애아동이 있으면 단정하게 신상을 물어 보고, 이름표나 소지품에 적힌 연락처로 알려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



지적장애인과 대화를 나눌 때는 쉬운 말로 된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말하고,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지적장애인을 만났을 때, 이상한 눈빛으로 보거나 피하거나 놀리지 않기



지체장애인을 만났을 때

휠체어 이용자 등 지체장애인이 거리에서 곤란해 하는 경우를 보면, 도움 일이 없는지 먼저 묻기



길거리에서 휠체어나 목발 이용자를 만나면, 먼저 지나갈 수 있게 옆으로 비켜주기

